

#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의결안건 제251호 관련)

2021. 11. 17.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10:30~18:45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51호 『(주)○○○○○ 및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이 사건 혐의사실은 피조사자는 舊(주)◇◇◇◇◇ 및 (주)□□□□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통해서 매매유입 목적으로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했다는 취지로 알고 있음. 저희 의견은 먼저 피조치자는 전업투자자로서 (주)◇◇◇◇◇ 및 (주)□□□□의 각 회사의 호재, 언론보도 등을 분석한 후에 주식에 대한 상승가치에 주목해서 주식거래를 한 것일 뿐, 시세조종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없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피조치자는 대상 회사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었고 전형적인 시세조종행위와 달리 다른 공범도 없었으며 자신의 자금으로 거래를 하였음. 대상 거래는 약 2~3년 전의 거래로서 당시 대상 주식들의 거래량, 거래 가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조치자의 거래량은 미미하고 정상적인 가격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조치자의 거래로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매가 성황에 있다거나 그런 유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 구체적으로 (주)◇◇◇◇◇ 주식과 관련해서는 대상 기간 동안 피조사자의 고가매수 주문 의심거래량이 약 66만주로 같은 기간 주식 전체 거

래량 1,215만주의 약 5.4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거래단  
가도 고가, 저가, 시가 등 종가의 범위 안에 있었으며 피  
조치자의 전체 매수 주식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전체 거래량의 약 8.27% 밖에 불과하지 않음. (주)  
□□□□의 경우에는 피조치자가 매수한 이후 주가가 오  
히려 X,XXX원에서 X,XXX원으로 하락하였고 20XX년 X월  
경에는 실제 (주)□□□□의 M&A가 성사되어 주가가 상승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조사자의 시세조종  
목적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또한, 대상 기간 동안  
에 피조치자의 고가매수 의심거래량인 약 58만주는 당시  
(주)□□□□ 주식 전체 거래량 930만주의 약 6.29%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거래단가 역시 가격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전체 매수주식은 주식량을 기준으  
로 볼 때도 전체 거래량의 12%에 불과하여서 피조치자에  
게는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 (위원)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매매나 통정매매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 계신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호가관여율이 한 5.5%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 (진술인) 제가 호가관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식을  
사려고 하면 한 호가 위에 있는 것을 사야 되는 것이고  
주식을 그렇게 사다 보니까 관여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

는 것 같음. 그런데 저는 고가매수를 해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올릴 목적이 전혀 없었음.

- (위원) 그런데 이상한 거래패턴, 저가매수주문을 내놓았다가 또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고가매수 주문을 하는 이상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음. 그리고 주문횟수가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고가매수 420회, 허수매수주문 33회로 횟수가 상당함.

▶ (진술인) 66만주 정도를 순매수했음. 66만주를 사려면 계속 순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고 또 싸게 사려다 보니까 밑에 저가매수주문을 내놔던 부분임. 66만주를 순매수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도 그 정도, 그러니까 100주를 사든 1,000주를 사든 횟수를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제가 임의로 주가조작을 하려고 했으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어야 되었는데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더 이상 관여도 안 하고 주식이 깡통이 나면서 팔기 바빴음. 제가 주가조작을 하려고 했으면 계속적으로 반복매매를 하면서 고가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팔았을 것임.

- (위원) (주)◆◆◆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 (진술인) (주)◆◆◆는 제가 회사가 좋아서 계속 꾸준하게 매집을 하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팔았음. 팔고 나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임. 그래서 추가로 매집을 하다 보니 (주)◆◆◆는 주식이 고점이었는데 다시 많이 사게 되었음.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주문 실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2018년 11월20일경에 첫 경고조치를 받았음. 그전까지 거래되었던 것은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경고나 투자주의를 받은 적이 없었음. 그리고 특히 (주)◇◇◇◇나 (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경고를 받거나 주의를 받거나 한 적이 전혀 없었음.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였으니까 증권사나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를 한다고 통보한 적도 없었음.

- (위원) (주)◇◇◇◇◇ 주식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해서 단시간 내에 구매를 하셨는데 매도한 사유가 타보유주식 증거금의 담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타보유주식은 (주)◆◆◆를 얘기하는 것인지?

▶ (진술인) (주)◆◆◆와 여러 주식이 있었음. 제가 그때 당시에 (주)◆◆◆는 한 3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주)◇◇◇◇가 빠지니까 (주)◆◆◆가 반대매매가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 주식을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이 사건 혐의사실은 피혐의자가 상장법인인 (주)OOOO의 업무 등과 관련해서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사유 발생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

기 전인 2019년 3월14일부터 3월19일경 사이에 제3자인 C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주)OOOO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는 것임. 본 혐의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피혐의자가 2019년 3월19일경 이전에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정보를 지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두 번째로 피혐의자가 동 정보를 2019년 3월14일부터 3월19일경 사이에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그리고 세 번째로 피혐의자가 C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C로 하여금 (주)OOOO 주식을 처분하는데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이상 3가지 사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지만 본건은 3가지 중 어느 하나도 입증한 자료가 없음. 첫 번째, 중요정보 생성 및 피혐의자가 동 정보를 지득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정보는 2019년 3월19일경 이전에 생성된 적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피혐의자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이를 지득한다는 것은 애당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 (주)OOOO의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정보는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한다고 통보한 2019년 3월21일 오후 무렵에야 비로소 생성되었고 피혐의자 또한 그 시점에야 비로소 동 정보를 지득할 수 있었음.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생성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발생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시되거나 그와 같이 발생될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

의 입장임. 즉, 이미 감사인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한 경우, 그리고 스스로 재무제표 제출을 거부하여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주) OOOO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배를 사유로 감사의견이 거절되었는데 당시에는 회계분식이나 재무자료 미비, 부적절한 거래,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 없이 단순히 회계처리기준 위배를 사유로 감사의견이 거절된 곳이 거의 없었음. 2018년도 (주)OOOO에 대한 반기보고서에서도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동일한 회계처리기준 하에서 적정의견을 낸 바도 있음. 그리고 2019년 3월21일 (주) OOOO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통보될 때까지 (주) OOOO은 성실하게 감사인의 요청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아도 적어도 2019년 3월19일경까지는 (주)OOOO에 대한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온다고거나 그와 같은 사실이 발생될 개연성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둘째로 중요정보 전달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피혐의자는 C에게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음. 이 사건 혐의사실은 피혐의자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정보를 2019년 3월14일부터 3월19일경 사이에 C에게 전달하였다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 정보를 전달했는지,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전달했는지 조차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음. 셋째, 제3자로 하여금 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



음. 피혐의자는 C로 하여금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OOOO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음. 단지, 피혐의자는 당시 새로 시행되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례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주)OOOO의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변 회계사 여러 명에게 비슷한 시기에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C는 그들 여러 명의 회계사들 중 한 명이었음. 더욱이 피혐의자는 C가 (주)OOOO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음. 조사기관에서 C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피혐의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위원) 감사의견 비적정 정보 생성시점 관련된 내용임. 진술인은 답변서에서도 그렇고 반기재무제표에서 회사의 진행률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금감원 자료를 보면 반기재무제표에 회계법인이 제출한 것을 보면 ‘회사의 진행률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기말결산 이전까지 모니터링 예정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람.

- ▶ (진술인) 반기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내는 시점에 제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확히 어떻게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반기검토보고서상에서는 저희 회사 측에서 제시한 IFRS 제1115호를 도입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중요성 관점에서 걱정하다는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저는 반기재무제표에 대해서 걱정

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임.

○ (위원) 걱정하다고는 인지하셨지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식을 하고 계셨는지?

▶ (진술인) 제가 반기재무제표에서 의견 문단하고 회계처리 정책만 봤었지, 지금 말씀하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재무제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2018년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종결'에서 '반기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에 대해 적시가 되어 있는데, '경영진과 논의한 주요 회계/검토 이슈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것인지?

▶ (진술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고서상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아까 대리인께서 말씀하실 때 의견거절에 대한 지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모두진술에서 말씀하셨음. 진술인께서는 회계사이니까 개연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의견거절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지 않으셨는지?

▶ (진술인) 진술서에 담긴 내용처럼 제가 그간에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회계처리기준 위배로 의견거절이 나온 경우를

제 경험상 보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추가로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2018년 당시에 회계처리기준으로 의견거절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당시에는 회계처리가 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인과 의견조율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음.

- (위원) 3월14일에 정식 공문이 발송됐는데 감사자료 시정요구 및 회계처리기준 위배의 소지를 언급하면서 회계법인에서 감사인이 정식 공문을 보냈음. 그전에 2월20일부터 2월22일 기말감사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셨는지?

▶ (진술인) 실질적으로 저는 3월4일 월요일에 입사를 했고 제가 현장감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을 알지 못했음.

- (위원) 정식 공문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문의를 하셨는데, 본인이 전문가인데 왜 질의를 하셨는지?

▶ (진술인)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IFRS 제1115호가 도입되는 첫해 시기였고 이때는 기준서상에서 원론적인 내용만 나왔지, 사례 같은 것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기간에 따라 인식하는 수익 외에 일반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찾고 싶어서 회계사들한테 문의를 한 것임.

○ (위원) 미공개 정보전달 과정에 대한 질문임. 모두진술에서 대리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C씨와의 대화내용이 녹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금감원에서 문답서를 통해서 받으셨는데, 2~3년 지난 내용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지?

▶ (진술인) 제가 그 당시에는 빨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IFRS 용역을 해 봤거나 알 것 같은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임.

○ (위원) 다른 세 분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다른 세 분에 대한 질의 내용과 C씨에 대한 질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C씨와의 통화도 3월14일 오후에 한 것인지?

▶ (진술인) 그렇게 기억함.

○ (위원) C씨가 (주)OOOO 주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 B씨가 인지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음. 2018년 10월에 주식 계좌를 신규 개설했다는 내용까지는 알고 있었었는데, C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는지?

▶ (진술인) 저는 전혀 몰랐음. 제가 자본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때문에 취득과 처분을 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C씨와 회계법인에 같

이 근무할 때 저희 부서 것을 취합해서 제출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보유주식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그 이후로는 따로 주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적이 없었음.

- (위원) 그러면 (주)OOOO 주식에 대해서 C씨가 갖고 있었던 유·무를 떠나서 (주)OOOO 주식에 대해서 C씨와 논의하신 적은 없는지?

▶ (진술인) 저도 사실 주식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아서 주식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해본 적이 없음.

- (위원) 3월14일에 외감법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근거해서 감사 및 대표이사에게 통보가 됐음. 그 당시 그것을 받으셨는지?

▶ (진술인) 이것을 회계 담당하는 다른 임원이 받았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저한테 질의를 하려고 왔었음.

- (위원) 진술서에 보면 3월14일에 ♡♡회계법인을 선임해서 외부감사인 자료에 대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법인하고 계약한 것이 있는지?

▶ (진술인) 3월14일은 아니고 그 이후인 3월18일 아니면 19일 정도일 것 같은데 ♡♡회계법인하고 미팅을 했음. 그 때 ♡♡회계법인에서 한창 기말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기들 인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고 했

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음.  
그래서 저희가 ♡♡회계법인에 요청자료를 발송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맺기 이전에 의견거절이 나와서 3월에 계  
약을 하지 못하고 의견거절이 나온 이후인 4월초에 ♡♡  
회계법인과 회계자문(PA) 계약을 했음.

○ (위원) ♡♡회계법인에 이런 이슈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어  
떤 반응을 보였는지?

▶ (진술인)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감사인이 어떤  
톤으로 얘기하는지 모르니 자료를 먼저 한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 그리고 다른 이슈가 있느냐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같이 해보자는 입장을 전달받았음.

○ (위원) 감사보고서가 원래 며칠에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지?

▶ (진술인) 주주총회를 3월28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주총 1주  
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의 만기일(due date)  
은 3월21일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런데 진술서에 보면 3월20일에 제출연장 건의를 했  
고, 회계법인에서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했  
다는 진술이 있음.

▶ (진술인) 맞음.

○ (위원) 3월20일에 제출 연장이라는 것이 부정행위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얘기하는 것인지?

▶ (진술인) 감사보고서 제출 연장을 건의한 것임.

○ (위원) 그렇다면 주총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되니까 주총도 뒤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닌지?

▶ (진술인) 저희는 주총을 연장하지 않고 주총 전에, 3월27일 이전에는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음. 그 당시에는 △△회계법인도 ♡♡회계법인까지 붙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을 했었음.

○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메일이나 그런 증거자료가 있는지?

▶ (진술인) 그 부분은 굉장히 중대(critical)해서 제가 직접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서 감사 담당하는 임원이 커뮤니케이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참여자) 공문 내용을 보면 ‘적절한 감사 절차의 수행이 가능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외감법 제22조의 ‘부정행위 등의 보고’ 규정까지 언급하여 통보를 했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최후통첩 아닌지?

▶ (진술인) 회계사로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구두로 처리했던 부분이었고 2018년에 제

가 이것을 받았을 때는 실무를 잘 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고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이제 문서(Paper)로 남기는 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지, 제가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위중한 사항이라고 느끼지는 않았고, H한테도 이것을 받았을 때 “이런 것은 그냥 으레 보내는 것이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참여자) 본인이 회계사로 근무하실 때 이런 것을 피감회사에 보내본 적은 없는지?

▶ (진술인) 한 번도 보낸 적 없음.

- (위원) B 진술인께서는 C씨가 (주)◇◇◇◇ 투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셨다고 하지만 C씨가 주식 투자를 그래도 제법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던 것인지?

▶ (진술인) 그것도 몰랐음.

- (위원) B 진술인께서 금감원과 문답하실 때, 2006년이나 2007년에 했었다는 것은 알았고 2018년 10월에 주식 계좌를 만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셨음. 지금 진술을 정정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주식 계좌를 만든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았고 C씨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까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을 들었던 것



이지,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전혀 몰랐음.

- (위원) 주식 계좌가 있으면 주식을 하는 것이지 주식 계좌 있는 것과 주식을 하는 것이 분리가 되는지?

▶ (진술인) 주식 계좌는 C씨가 원래 가지고 있었음.

- (위원) 그러니까 주식 계좌가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지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주식 계좌는 원래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음.

- (위원)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주식 계좌가 있으면 당연히 주식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지?

▶ (진술인) C씨가 주식 계좌를 만든 것이 2006년, 2007년 이때부터 주식 계좌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때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님.

- (위원) 주식에 발은 들여놓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고, 2006년, 2007년에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2018년에는 계좌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었고, 그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 (진술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C씨는 2006년에 저와 회계법인 입사동기임. 그때 당시에는 주식 투자를 했었고 손실을 많이 봐서 그 이후로 주식을 계속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그래서 C씨가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제가 안 것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초에 주식 취득 현황을 취합했을 때도 주식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주식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었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피혐의자 C의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성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동피혐의자 B으로 부터 전달받아 해당 종목의 거래에 이용해야 됨. 그러나 금감원이 주장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피혐의자 C가 공동피혐의자 B으로 부터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건임. 즉, 정보가 전달된 사실이 입증할만한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 메일, 음성녹취 내역, 진술 등이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 이와 같은 정보전달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더라도 정보를 지득한 구체적 방법, 경위, 날짜, 전달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못했음. 물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간접증거만으로도 범행을 입증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에 준하는 정보의 증명력을 가진 간접증거도 존재하지 않음. 정보를 전달 받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의심과 정황만으로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통보된다면 이는 피혐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만을 줄 뿐임. 한편, 이 사건은 피혐의자가 (주)OOOO 주식을 매각할 당시인 2019년 3월19일에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임.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계법인과 회사 간의 의견조율, 시정 요구, 자료 요청 등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절차임. 이러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되었고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감원이 말하는 감사의견거절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더욱이 이 사건의 특징은 금감원이 주장하는 미공개중요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인 회계법인에서 생성된 정보임. 그리고 감사의견거절 사유도 회사의 증빙자료 제출 거부 등과 같이 (주)OOOO에서 예견이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사유가 아니라 회계처리기준위반이라는 내부 사실이었임. 결국 정보생성의 주체가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회계법인이라는 점, 감사의견거절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점, 감사의견거절 사유도 이례적인 회계처리기준위반이라는 점을 종합한다면 당시 감사인인 △△회계법인에서 2019년 3월19일 이전에 공동피혐의자 B에게 감사의견거절을 알려 주었다는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감사절차진행을 위해서 △△회계법인에 공문을 보내고 이에 대응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한 사항만으로 감사의

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임. 물론 하급심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감사의견 거절을 미공개중요정보로 봐서 범행을 인정한 경우도 있음. 하지만 하급심 대부분의 판례들은 이 사항과 결을 달리함.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미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거절이라는 정보가 생성된 이후에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전달된 경우임. 이와 같이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회계법인에서 생성된 정보가 회사에 전달되기 전에 정황만으로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사안은 없음. 반면에 2019년 3월19일에는 피혐의자가 (주)OOOO 주식을 매도할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 (주)OOOO 주식은 2019년 3월14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4거래일동안 19%나 상승한 상황이었음. 그리고 3월19일 주가는 2018년 10월26일 이후 약 5개월 동안 가장 높았음. 피혐의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득해서 주식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5개월 만에 (주)OOOO 주식의 시세가 최고가를 형성하자 단순히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각한 것에 불과함. 결국 이 사건은 피혐의자가 주식을 매각한 2019년 3월19일에는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라는 미공개정보가 생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혐의자 C는 공동피혐의자 B으로부터 주식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 그런 사안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피혐의자 C에게 합당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 B씨와 3월14일에 통화를 하셨는지?

▶ (진술인) 자조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인식 관련해서 통화를 한 기억은 있지만 그것이 3월14일인지는 기억이 안 남.

○ (위원) 평소에 B씨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 (진술인) 2018년 10월 당시에는 제가 B에게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는 그 당시에 입사가 확정된 회사가 있었지만 B은 여러 회사, 회계법인들에 입사확정도 안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면접을 본 회사 중의 하나인 회사 주식을 샀다는 얘기를 더구나 못했을 상황임. 과거 ▽▽회계법인에 있을 때는 다 같이 주식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주식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음.

○ (위원) C씨는 평소 (주)OOOO 주식 외 다른 주식들도 많이 매매하시는지?

▶ (진술인) 저는 한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고 2018년 10월 이후부터 약 7~8개 종목을 투자해 왔고 한 종목 혹은 두 종목인데 투자비중을 작게 가져오고 있음.

○ (위원) 3월19일에 18,000주를 2분에 걸쳐서 시장가로 한꺼번에 전부 매도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C씨의 매매패턴이 그런 것인지?

▶ (진술인) 똑같음. 제가 자조심에서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 매매패턴들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에 사야 되겠다는 주식이 있으면 동시간에 거의 당일애 모두 팔고 바로 그 주식을 사는 투자성향이 있음.

- (위원) (주)OOOO 주식만 놓고 보면 2019년 3월19일에 18,000주를 2분 동안 시장가로 매도한 것 외에 동일 종목에 대해서 2018년 10월26일에 9,000주를, 한 5,000만 원어치를, 이때는 시장가가 아닌 지정가로 매도를 하신 것 같음. 그렇다면 매매패턴이 다른 건 아닌지?

▶ (진술인)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지 않나 싶음. 2019년 3월 경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그 전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상황에서 19일날 거래량이 전일과 전전일에 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여서 시장가로 팔아도 원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음. 그리고 평소 거래가 없을 때에도 저는 일시에 사고 일시에 팔.

- (위원) (주)OOOO 관련해서 ☆☆☆☆☆의 본인 계좌가 아닌 ▲▲▲▲의 계좌에서도 매매를 하셨는데, 2019년 1월28일에 3,891주, 한 2,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매도하셨음. 이때는 시장가로 주문하셨는지 지정가로 주문하셨는지?

▶ (진술인) 기억이 나지 않음.

- (위원) 3월19일에 (주)◇◇◇◇ 전량 매도한 다음에 (주)★★★ ★★라는 주식을 매수했음. (주)◇◇◇◇ 매도금액이 1억 300

만 원 정도 되는데, (주)★★★★★는 얼마 정도 매수하신 것  
인지?

▶ (진술인) 기존에 (주)★★★★★를 약 1,300만 원 정도 보유  
한 상태에서 (주)◇◇◇◇◇ 주식을 매도하고 2회에 걸쳐서  
바로 즉시 매수를 했음. 한 4,000만 원 정도는 12시경에  
매도를 하고 바로 매수했고 나머지는 2시 이후에 매수를  
했던 것 같음.

○ (위원) 그러면 1억 300만원에 해당하는 전금액을 (주)★★★★★  
★ 매수용으로 사용하셨는지?

▶ (진술인) 제 기억으로는 거의 대부분 당일에 바로 매수를  
했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는 다음날 매수했던  
기억이 있음.

○ (위원) (주)★★★★★는 왜 매수하셨는지?

▶ (진술인) 제가 애당초 2018년 10월부터 가지고 있었던 종목  
이었고 3월6일에 호재성 기사가 나오고 ○○○게시판에 3  
월18일에 호재성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었다는 것이 나와서  
3월19일에 감사보고서를 확인하고 오전에 바로 한 것임.

○ (위원) (주)★★★★★ 매수하려고 (주)◇◇◇◇◇를 매도했다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금감원 진술서 자료를 보면, B씨가 “C 회계사는 제 의견이 맞을 것 같다고 하였고, 이것으로 의견이 안 나올 수 있냐?”고 하니까 C 진술인께서는 “회계법인이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 당시 전화하는 과정에서 감사의견 거절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이렇게 진술한 것과 전화통화를 하신 것을 기억하시는지?

▶ (진술인) 아님. 진술 당시에는 회사가 어떤 사유로 의견거절을 당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 금감원 조사역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두 분께 한 세 시간 정도의 문답조사 중에 1시간 이상을 다른 조사 때 참고할 목적인다고 하셔서 그 당시 회계 쟁점, 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음. 그것은 확실함. 금감원 조사역 두 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1시간 넘게 설명해 드리면서 그 당시 쟁점이 이런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것은 아님. 제가 3년 전 3월에 전화가 왔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당연히 기억을 못하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임.

○ (위원) 3월14일 무렵에 전화를 하고 회사가 회계처리나 이런 등등으로 의견거절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다는 것은 인지를 못하셨는지?

▶ (진술인) 전혀 몰랐음. 2019년 4월에 제가 회계자문(PA) 용역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자세히 들었던 내용임. 자



조심 의견진술서에도 그 말씀을 드렸음.

- (위원) B씨가 그 회계처리 관련해서 문의를 할 때 본인의 생각은 어땠는지?

▶ (진술인) 일단은 수익인식기준 첫 해였고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은 제가 그 당시에는 맡아본 업체는 아니었음. 제가 과거 건설업 감사한 경험이 있어서 물어본 것 같고 다만 제가 수익인식 도입 시점에는 관련된 용역을 하지 않아서 확인해 보겠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따로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함.

- (위원) 금감원 조사자와 전화통화에서 B씨가 본인의 (주)◇◇◇◇ 주식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조사문답 과정에서는 그것을 몰랐다고 정정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람.

▶ (진술인) 제 기억으로는 금감원에서 전화가 와서 “그 당시 주식매도와 관련해서 조사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떤 조사냐?”, “관련자가 누구냐?”고 저도 궁금해서 여쭙어 봤고,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사에 도움도 드릴 겸 그 당시에 기억도 안 나고, 불시에 전화가 왔지만 상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음. 그리고 나서 그때 도움드릴 것도 있고 저도 하소연할 것도 있어서 문답조사하기 전에 제가 먼저 두 번 정도 전화를 드렸음. 제가 문답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역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그때 제가 문답조사과정에 3년 만에 전화가 왔고 B이 언제 입사한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 문답조사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오니 3월달에 입사했다고 하더라 하는 부분임. 이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 말씀에 신뢰성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그분께서 하셨음.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